

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, 노인, 청소년,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. <여당당>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, <노년시대>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, <1318>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, <더 소울(The Soul)>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줄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.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.

# 1318

## 청소년NEWS

미래의 동량 청소년들의 희망을 담는다



1318.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이다.

“13~18세의 청소년은 ‘학생’의 신분이며, 질풍노도의 삶을 사는 지역의 미래다”

# 가을맞이 청소년 프로그램 ‘풍성’

고성청소년수련관 정기강좌·캠프 진행 ... 플로어볼·영상테라피교실·청소년 산악클럽

고성청소년수련관은 여름캠프에 이어 가을을 맞이해 다양한 가을 정기강좌프로그램과 캠프프로그램을 진행한다.

정기강좌 방과후 체능교실에서 매주 화요일 플로어볼 및 농구, 티볼 등 체능교실을 운영한다.

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영국

식 설탕공예 체험과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요리교실을 진행한다.

또 대인관계 훈련과 사회성 함양, 아동 및 청소년 정서놀이치료 프로그램인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오감만족교실을 병행해 운영한다.

매주 금요일은 영화를 이용한

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인 영상테라피교실을 운영하며,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는 카트, 바다레프팅, ATV, 산악자전거, 투어바이크 등 이색스포츠클럽 체험활동을 진행한다.

설피알파인 클럽 산악동호회 자원지도자의 지도로 워킹과 암벽, 캠핑, 산장 등의 청소년산악클럽을 매월 둘째주 일요일 운영한다.



청소년산악클럽 암벽 프로그램 모습.

이틀러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고성산, 설악산, 화암사 계곡 등 전문 숲 생태전문가와 함께하는 숲 생태 체험교실이 진행된다.

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청소년 게임대회

와 청소년 스포츠교실, 댄스 아카데미 등 청소년 놀이터를 운영한다.

이밖에 캠프프로그램으로 ‘고래의 꿈’ 청소년 문화체험단과 영월문화 및 지리여행을 통한 교과서 따라잡기 등을 운영한다.

또 자전거로 떠나는 경주문화여행과 낭만기행,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인 ‘DMZ를 찾아서’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.

어린이 눈술교실과 진로체험교실,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교과서 여행 및 “Dream high” 테마로 청소년진로프로그램도 운영된다.

고성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“가을을 맞이해 낭만과 생태문화 등 청소년들의 활기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”고 했다.

박승근 기자

###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성공개최 기원



달리는 지하철의 한판 승부!  
내가 질 거리는 생각하지 않아  
내 안의 열정, 그것으로 충분히  
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 
상상하는 자에게 세상은 놀이터다

KT&G

KT&G 속초지점 신창운 외 직원일동

## 자원봉사센터,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

고성군자원봉사센터(센터장 황재철)는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.

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은 자원봉사 ‘활동’의 의미를 이해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
이를 통해 올바른 자아상 확립과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및 자아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.

이번 교육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합교육, 반별교육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.

자원봉사기본교육, 자살예방교육과 대화기법의 심리교육을 비롯해 연극교육(오르비-영어, 일어, 생활회화, 일본문화소개하기 등) 등이 진행된다.

한편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별 순회교육



대진초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.

은 지난 4월 30일 광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거진중합고등학교, 고성고등학교, 대진초등학교, 도학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. 11월 5일에는 고성고등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.

박승근 기자